

룻기 2장 1-7절 말씀

A.

- 0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
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
- 0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
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
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
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
내 딸아 갈찌어다 하매
- 0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
우연히
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

B.

- 04 마침
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
베는 자들에게 이르되
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
그들이 대답하되
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
- 0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
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
- 0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
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
- 0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
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
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